

# 부록

—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21



#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21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 전체
GDP 증가율		10.3	4.5	11.7	10.6	4.8	13.3	-19.6	6.2
1인당 GDP 증가율	% (연증가율)	8.8	4.0	11.2	8.7	4.7	12.2	-18.2	5.3
소비자물가 상승률		51.7	10.2	5.3	4.5	6.0	5.2	1,946.0	6.4
명목 GDP	십억 달러	455	1,646	331	301	1,286	226	45	4,985
1인당 명목 GDP	달러	9,929	7,741	16,799	5,892	9,967	6,676	1,627	7,777
실업률(연평균)	%	9.8	13.9	9.4	14.0	4.3	7.0	6.8	10.0
수출	십억 달러	70.5	285.8	98.8	40.6	504.8	60.6	22.2	1,212.6
수입		57.4	222.6	80.2	52.2	503.7	49.0	11.5	1,145.0
무역수지		13.1	63.2	18.6	-11.7	1.1	11.6	10.7	67.5
외환보유고		43.0	369.4	53.3	58.7	211.6	75.8	11.2	943.5
경상수지	%	1.0	-0.5	-2.5	-4.4	0.0	0.4	0.3	-0.6
총정부부채	(GDP 대비)	91.1	83.0	33.1	62.2	40.4	31.5	34.9	54.7

주: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는 IMF 통계 기준, GDP 증가율은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기준, 나머지 통계는 ECLAC 통계 기준. 베네수엘라 GDP 증가율, 1인당 GDP,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실업률은 2019년, 총정부부채는 2017년 기준.

출처: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국제통화기금(IMF),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 II. 실물경제지표

### 1. 경제성장률

:: 2021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COVID-19 여파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COVID-19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함.

| 2021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6.2%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경기 침체(-6.8%)에 따른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함.

| 2021년 라틴아메리카 경제 회복은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 증대,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 해외송금 유입 증가 등 대외 경제여건 개선과 백신 접종 확대 및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대 등 대내 경제여건 개선에 기인함.

|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제조업 생산 차질로 빠른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음.

:: 소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 경제가 6.4% 성장세를 보여 중앙아메리카 경제(멕시코 포함)의 회복세(6.0%)를 상회함.

| 그러나 멕시코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경제는 6.7% 성장을 달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임. 이 같은 중앙아메리카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은 수출 확대와 해외송금 유입 증대에 기인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이 2020년의 경기 침체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임.

| 페루(13.3%), 칠레(11.7%), 콜롬비아(10.6%), 아르헨티나(10.3%)가 2020년 경기침체를 상회하는 두 자릿수의 빠른 회복세를 보임.

| 브라질 경제도 수출 증대, 민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2020년 -3.9% 역성장에서 벗어나 4.5% 성장을 시현함.

| 그에 반해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더딘 소비 증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여파로 4.8% 회복에 그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2.8	-2.6	-2.0	-9.9	10.3
브라질	1.3	1.8	1.2	-3.9	4.5
칠레	1.2	3.7	0.9	-5.8	11.7
콜롬비아	1.4	2.6	3.3	-6.8	10.6
멕시코	2.1	2.2	-0.2	-8.2	4.8
페루	2.5	4.0	2.2	-11.0	13.3
베네수엘라	-15.7	-19.6	-	-	-
라틴아메리카(b)	1.1	1.1	0.0	-6.8	6.2(c)

주 | (a)는 실제치, (b)는 2010년 불변가격기준, (c)는 잠정치  
출처 | ECLAC

:: 경기회복에 힘입어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1인당 GDP도 증가세로 전환됨.

| 그러나 1인당 GDP 증가율은 5.3%에 그쳐 2020년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페루가 12.2%로 가장 빠른 1인당 GDP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칠레(11.2%), 아르헨티나(8.8%), 콜롬비아(8.7%)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1.8	-3.5	-2.9	-10.7	8.8
브라질	0.5	1.0	0.5	-4.6	4.0
칠레	-0.2	2.3	-0.2	-6.6	11.2
콜롬비아	-0.2	1.0	1.9	-7.8	8.7
멕시코	0.9	1.1	-1.3	-9.1	4.7
페루	0.8	2.2	0.6	-12.2	12.2
베네수엘라	-14.4	-18.2	-	-	-
라틴아메리카(b)	0.1	0.0	-0.9	-7.6	5.3

주| (a)는 ECLAC 잠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ECLAC

## 2. 투자

:: 경기회복에 힘입어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전년대비 16.3% 증가함.

| 큰 폭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GDP대비 투자율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한 19.5%를 기록함.

|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2.5%포인트, GDP대비), 페루(2.5%포인트), 브라질(1.9%포인트)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투자율 증가세를 보임.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22.3%), 페루(21.2%), 멕시코(20.7%)가 라틴아메리카 지역 평균 이상의 투자율(GDP대비)을 기록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18.9%), 브라질(17.3%), 콜롬비아(19.4%)는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밑도는 낮은 투자 수준을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투자율(GDP대비)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18.2	16.6	14.9	14.9	18.9
브라질	14.6	15.1	15.4	15.4	17.3
칠레	21.2	22.2	23.0	23.0	22.3
콜롬비아	21.6	21.2	21.5	21.5	19.4
멕시코	22.9	22.7	21.2	21.2	20.7
페루	20.6	21.6	21.1	21.1	21.2
베네수엘라	-3.7	-	-	-	-
라틴아메리카	18.2	19.1	18.7	18.7	19.5

주 | (a)는 잠정치  
출처 | IMF

### 3.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가. 수출(상품 수출)

::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은 전년대비 27.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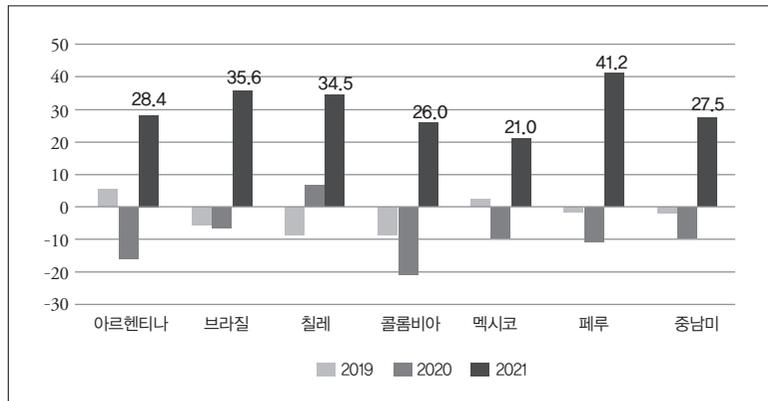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17%, 8% 증가함.

| 소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이 34% 증가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수출 증가율(24%)을 앞섬.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페루가 가장 빠른 수출 증가세(41.2%)를 시현했으며, 브라질(35.6%), 칠레(34.5%), 아르헨티나(28.4%), 콜롬비아(26.0%), 멕시코(21.0%)가 그 뒤를 이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큰 폭의 수출 증가로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2,612억 달러 증가한 1조 2,12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5,048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858억 달러), 칠레(988억 달러), 아르헨티나(705억 달러), 페루(606억 달러), 콜롬비아(405억 달러), 베네수엘라(93억 달러)가 잇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58,639	61,801	65,156	54,945	70,541
브라질	218,069	239,537	225,800	210,707	285,806
칠레	68,859	75,200	68,763	73,485	98,814
콜롬비아	39,777	44,440	40,656	32,209	40,586
멕시코	409,806	451,083	460,939	417,151	504,808
페루	45,422	49,066	48,224	42,941	60,629
베네수엘라	34,030	33,677	22,227	-	-
라틴아메리카(b)	989,741	1,075,071	1,053,089	951,327	1,212,571

주 | (a)는 추정치, (b)는 카리브 제외 출처 | ECLAC

## 나. 수입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31.4% 증가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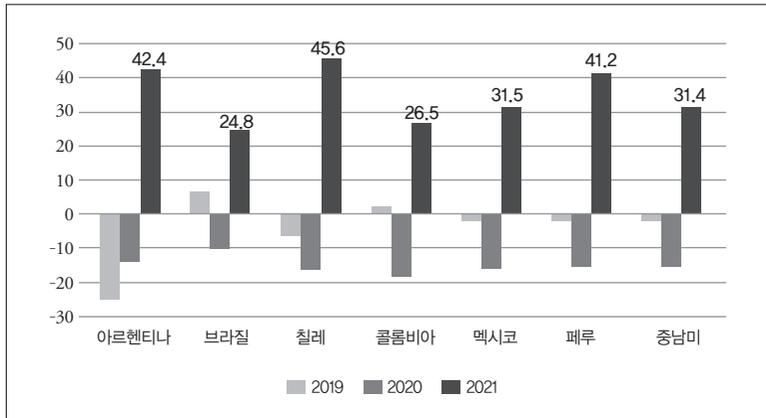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 가격과 물량은 각각 12%, 20% 증가함.

| 소지역별로 남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은 36%,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은 34% 증가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빠른 수입 증가세(45.6%)를 보였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42.4%), 페루(41.2%), 멕시코(31.5%), 콜롬비아(26.5%), 브라질(24.8%)이 잇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높은 수입 신장세에 힘입어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 규모는 전년 보다 2,735억 달러 증가한 1조 1,450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5,037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 (2,225억 달러), 칠레(802억 달러), 아르헨티나(574억 달러), 콜롬비아(522억 달러), 페루 (490억 달러), 베네수엘라(65억 달러)가 있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르헨티나	64,101	62,544	46,928	40,315	57,423
브라질	154,109	186,490	199,253	178,337	222,571
칠레	61,500	70,555	65,810	55,116	80,249
콜롬비아	44,247	49,584	50,708	41,290	52,245
멕시코	420,790	464,850	455,772	383,172	503,724
페루	38,722	41,870	41,106	34,713	49,028
베네수엘라	12,023	12,782	11,504	-	-
라틴아메리카	946,911	1,053,258	1,031,251	871,517	1,145,044

주 | 2021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역조건은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약 5% 개선됨.

| 그러나 교역조건 개선은 수출상품의 종류와 소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가장 크게 개선(15%)되었으며, 금속 및 광물 수출국과 농산물 수출의 교역조건은 13% 상승했음.
- 그에 반해 석유 수입국인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교역조건은 1% 악화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의 교역조건이 가장 크게 개선(전년대비 19%)되었음. 그에 반해 공산품 수출국인 멕시코의 교역조건은 -6% 악화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교역조건 추이

(단위: 2010 = 100)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르헨티나	104.1	105.1	104.4	105.0	120.1
브라질	93.2	91.3	91.8	93.2	111.3
칠레	99.7	96.7	95.1	104.4	118.7
콜롬비아	79.7	87.2	86.0	72.7	84.4
멕시코	96.5	96.1	98.3	97.1	91.1
페루	93.0	92.6	91.0	99.4	110.0
베네수엘라	63.9	80.8	69.4	53.6	67.7
라틴아메리카	93.9	94.6	95.1	95.3	100.3

주 | 2021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빠른 수입 증가세로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675억 달러를 기록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흑자국 중에서 브라질, 칠레, 페루의 무역흑자가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무역흑자는 감소함. 특히 멕시코의 무역흑자 감소는 자동차 부품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동차 수출 하락에 기인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르헨티나	-5,462	-743	18,228	14,630	13,118
브라질	63,960	53,047	26,547	32,370	63,235
칠레	7,359	4,645	2,953	18,369	18,565
콜롬비아	-4,470	-5,144	-10,052	-9,081	-11,659
멕시코	-10,984	-13,767	5,167	33,979	1,084
페루	6,700	7,196	7,118	8,228	11,601
베네수엘라	22,007	20,895	10,723	-	-
라틴아메리카	42,830	21,813	21,838	79,810	67,527

출처 | ECLAC

:: 대외경제의 기초체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 감소로 악화됨.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상수지는 2020년 7억 달러 흑자에서 2021년 287억 달러 적자로  
 전환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반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는 흑자를 시현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르헨티나	-31.1	-27.1	-3.7	3.3	4.5
브라질	-22.0	-51.5	-65.0	-25.9	-8.5
칠레	-6.4	-11.7	-10.4	3.5	-8.3
콜롬비아	-10.7	-13.7	-14.5	-9.3	-13.2
멕시코	-20.4	-25.1	-3.9	26.1	0.4
페루	-2.8	-3.9	-2.2	1.6	0.9
베네수엘라	8.7	8.6	5.0	-2.0	0.1
라틴아메리카	-94.6	-140.8	-102.7	0.7	-28.7

주 | 2021년은 추정치  
 출처 | IMF

::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GDP대비 경상수지는 -0.6% 적자를 기록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4.4%, GDP대비), 칠레(-2.5%)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르헨티나	-4.8	-5.2	-0.8	0.9	1.0
브라질	-1.1	-2.7	-3.5	-1.8	-0.5
칠레	-2.3	-3.9	-3.7	1.4	-2.5
콜롬비아	-3.4	-4.1	-4.5	-3.4	-4.4
멕시코	-1.8	-2.1	-0.3	2.4	0.0
페루	-1.3	-1.7	-0.9	0.8	0.4
베네수엘라	6.1	8.8	7.8	-4.3	0.3
라틴아메리카	-1.7	-2.6	-2.0	0.0	-0.6

주 | 2021년은 추정치  
출처 | IMF

#### 4.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 정부지출 축소와 재정수입 확대로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됨.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재정지출(GDP대비)은 23.6%로 전년(24.7%)보다 소폭 감소함.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재정수입(GDP대비)은 17.8%에서 18.6%로 개선됨.

| 그 결과, 2021년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2020년 6.9%에 비해 1.9%포인트 개선된 5.0%를 기록함.

| 그러나 소지역별로 재정수지 개선 이유는 다소 달랐음.

- 남아메리카에서 재정수지 개선은 재정지출 감소보다는 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컸음. 2021년 남아메리카의 재정지출은 전년대 -0.9%포인트 감소에 그친 데 반해 재정수입은 1%포인트 증가했음.
- 그에 반해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포함)에서는 재정지출 감소가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음.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재정지출은 1.3%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재정수입 증가는 0.5%포인트에 그쳤음.

::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부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함.

| 2021년 9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총 정부부채(GDP대비)는 평균 54.7%로 2020년 말 대비 1.7%포인트 하락함.

| 소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56.1%, GDP대비)의 정부부채 규모가 중앙아메리카(53.3%)를 상회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91.1%, GDP대비), 브라질(83%), 코스타리카(74.5%), 파나마(66.5%)가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상회하는 정부부채 규모를 기록함.

| 그에 반해 과테말라(26.5%, GDP대비), 파라과이(29.4%), 페루(31.5%)는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크게 밑도는 양호한 정부부채 수준을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총 정부부채(중앙정부, 비금융부문)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56.5	85.2	88.8	102.8	91.1
브라질	74.0	77.2	74.3	88.8	83.0
칠레	23.6	25.6	28.2	32.5	33.1
콜롬비아	44.9	48.6	48.6	48.6	62.2
멕시코	35.2	35.4	36.1	42.0	40.4
페루	24.3	23.8	24.8	32.9	31.5
베네수엘라	34.9	-	-	-	-
라틴아메리카(b)	39.7	43.0	45.3	56.4	54.7

주 | (a) 2021년은 9월 말 기준, (b) 단순 평균. 카리브 및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제외  
출처 | ECLAC

## 5. 실업률

:: 봉쇄조치 완화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

-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실업률은 2020년 10.3%에서 2021년 10.0%로 0.3%포인트 개선됨.
- | 실업률 개선이 더딘 이유는 COVID-19 여파 지속에 따른 생산활동의 전면적인 재개가 지체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장 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임.
- 특히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정부의 실업수당 지원과 보건(건강)에 대한 우려로 노동자들이 일자리 복귀를 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업률이 개선되었음.

- | 국별로 아르헨티나(1.7%포인트), 칠레(1.4%포인트), 콜롬비아(1.1%포인트), 페루(0.7%포인트)의 실업률이 라틴아메리카 평균(0.3%포인트) 이상 개선되었음.
- | 그에 반해 브라질의 실업률은 2020년 13.8%에서 2021년 13.9%로 0.1%포인트 증가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평균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르헨티나	8.4	9.2	9.8	11.5	9.8
브라질	12.8	12.4	12.0	13.8	13.9
칠레	7.0	7.4	7.2	10.8	9.4
콜롬비아	8.8	9.1	9.9	15.1	14.0
멕시코	3.4	3.3	3.5	4.4	4.3
페루	4.1	3.9	3.9	7.7	7.0
베네수엘라	7.3	7.3	6.8	-	-
라틴아메리카	8.1	7.9	7.9	10.3	10.0

주 | 2021년은 9월까지 추정치,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 비율 출처 | ECLAC

### Ⅲ. 금융·외환지표

#### 1. 환율

- :: COVID-19 충격에다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함.
  -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10월 말 기준)의 평균 통화가치(달러 대비)는 2020년 말과 비교해 5.9% 하락함.
  - | 그러나 통화가치 하락 폭이나 환율의 변동성은 2020년보다 완화되었음.
  
-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통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짐.
  - |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달러 대비)는 전년보다 22.1%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 | 정치적 혼란으로 칠레(19.9%), 콜롬비아(18.9%), 페루(10.2%)의 통화가치도 두 자릿수의 약세를 면치 못함.
  - | 그밖에 브라질의 헤알화(7.3%)와 멕시코의 페소화(3.0%) 가치도 하락세를 피해 가지 못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환율	2020년 대비 변동률(%)
아르헨티나	18.60	37.68	59.86	84.08	102.68	22.1
브라질	3.31	3.87	4.02	5.19	5.57	7.3
칠레	615.22	694.02	752.08	710.00	851.10	19.9
콜롬비아	2,971.63	3,247.03	3,282.76	3,419.50	4,065.41	18.9
멕시코	19.66	19.64	18.93	19.90	20.49	3.0
페루	3.24	3.37	3.31	3.61	3.98	10.2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지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지 상승)을 의미  
출처 | 각국 중앙은행

## 2. 금리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책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하락 폭은 크게 둔화함.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COVID-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음.

|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들어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거나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전환함.

| 인플레이션 상승 및 기대 효과 차단을 위해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실시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11개국 중 9개국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물가상승 폭이 빠른 브라질이 가장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연평균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26.4	44.4	65.2	39.7	38.0
브라질	9.8	6.6	6.0	2.8	4.1
칠레	2.7	2.6	2.5	0.8	0.9
콜롬비아	6.0	4.3	4.3	2.8	1.8
멕시코	6.8	7.7	8.0	5.3	4.3
페루	3.8	2.8	2.6	0.7	0.5
베네수엘라	6.4	6.2	16.5	-	-
라틴아메리카(b)	8.8	10.7	15.0	8.7	8.3

주 | (a)는 2021년 10월 기준, (b)는 7개국 단순 평균  
출처 | ECLAC

### 3. 소비자물가상승률

:: COVID-19 충격으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2021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함.

| 2021년 9월 기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4%로 2008년 10월(6.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소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가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함.

- 2021년 9월 기준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0%를 기록한 데 반해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에 그침.

|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30개국에서 소비자물가가 2020년 9월 대비 상승함. 특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등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두드러짐.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소비자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 공급망 차질 등에 기인함.

|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등에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중간재 및 부품, 기계 및 장비 조달 어려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가 물가상승을 부추김.

|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에서는 수십 년 만의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 차질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이 물가인상을 초래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25.0	47.1	52.9	34.1	51.7
브라질	2.9	3.7	4.3	4.5	10.2
칠레	2.3	2.6	3.0	3.0	5.3
콜롬비아	4.1	3.1	3.8	1.6	4.5
멕시코	6.8	4.8	2.8	3.2	6.0
페루	1.4	2.2	1.9	2.0	5.2
베네수엘라	862.6	130,060.2	9,585.5	2,959.8	1,946.0
라틴아메리카(b)	3.6	3.2	3.1	3.0	6.4

주 | (a)는 2021년 9월까지 12개월 누적 기준, (b)는 가중평균, 아르헨티나, 아이티 및 베네수엘라 미포함  
출처 | ECLAC

#### 4. 국가위험도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위험도(JP Morgan의 EMBIG<sup>1)</sup> 기준)는 COVID-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과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확대 등의 여파로 2021년에도 상승세를 보임.

| 2021년 10월 말 기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위험도는 401bps를 기록했으며, 2021년 10월 말까지 연평균 국가위험도는 389bps를 나타냄.

| 그러나 이 같은 국가위험도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위험도는 2020년 평균(507bps)을 하회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의 국가위험도가 소폭 하락한 데 반해 나머지 국가들의 국가위험도는 큰 폭으로 상승함.

| 국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우루과이의 국가위험도(138bps)가 가장 낮았으며, 칠레(161bps), 페루(181bps)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국가위험도를 기록함.

| 그에 반해 극심한 정치경제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위험도(3만 2,198bps)를 보임. 채무디폴트 상황에 처해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위험도도 라틴아메리카 평균보다 4배 높은 1,712bps를 기록함.

1) EMBIG는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을 의미하며, 보통 이머징마켓채권 지수로 불림. 여기서 국가위험도는 EMBIG 채권 수익률과 미국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국가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단위: bps, EMBI Global, 연말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19	2020(a)
아르헨티나	351	817	1,744	1,368	1,712
브라질	232	273	212	250	338
칠레	117	166	135	144	161
콜롬비아	173	228	161	206	302
멕시코	245	357	292	361	353
페루	136	168	107	132	181
베네수엘라	4,854	6,845	14,740	24,099	32,198
라틴아메리카	419	568	346	386	401

주 | (a)는 10월 기준  
출처 | ECLAC

## 5. 주가

:: 2021년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주식시장은 국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임.

|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페루의 주식시장이 실적 개선을 보인 데 반해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은 침체를 보였음.

- 아르헨티나 Merval 주가는 미국 ADR에 상장된 주요 기업 주가의 호실적에 힘입어 외환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전년대비 63% 상승함.
- 멕시코, 칠레, 페루 주가도 전년대비 각각 20.9%, 2.5%, 0.7% 상승함.

| 그에 반해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주가는 전년대비 각각 -11.9%, -1.8%, -99.6% 하락함.

- 특히 브라질 Bovespa 주가는 금융부문 실적 부진으로 전년대비 약 12% 하락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가	2020년 대비 변화율(%)
아르헨티나(MERV)	29,975	30,292	41,671	51,226	83,500	63.0
브라질(BOVESPA)	77,020	87,887	115,645	119,017	104,822	-11.9
칠레(IGPA)	27,981	25,949	23,393	21,007	21,538	2.5
콜롬비아(COLCAP)	1,514	1,325	1,662	1,437	1,411	-1.8
멕시코(IPC)	49,354	41,459	43,657	44,066	53,272	20.9
페루(LIMA) IGBVL	19,974	19,350	20,587	20,967	21,112	0.7
베네수엘라(BC)	1,263	1,605	831,880	1,332,059	5,919	-99.6

출처 | tradingeconomics.com(검색일자: 2021년 1월 30일)

## 6. 외환보유고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21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9,43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22개국에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함. 평균 외환보유고 증가는 15.7%에 달했는데, 그중에서 베네수엘라와 칠레는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이 같은 외환보유고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무역흑자 지속, 해외송금 유입 확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가치 상승 등에 기인함.

| 2020년 중반 이후 IMF와의 탄력적크레딧라인(FCL: Flexible Credit Line) 협정 체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환율 방어 능력을 크게 확대함.

:: 국별로 외환보유고 규모는 브라질이 3,694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를 멕시코(2,116억 달러)가 잇고 있음.

|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라틴아메리카 전체 외환보유고의 61.5% 비중을 차지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111억 달러)가 가장 작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a)
아르헨티나	55,055	65,806	44,781	39,387	43,004
브라질	373,972	374,715	356,884	355,620	369,382
칠레	38,983	39,861	40,657	39,200	53,309(b)
콜롬비아	47,637	48,402	53,174	59,039	58,730(b)
멕시코	175,450	176,384	183,028	199,056	211,590
페루	63,731	60,288	68,370	74,909	75,846
베네수엘라	9,662	8,830	6,630	6,364	11,188
라틴아메리카	859,610	868,029	852,243	891,560	943,466

주 | (a)는 2021년 10월 말 기준, (b)는 2021년 9월 말 기준  
출처 | ECLAC

## 7. 국가신용등급

:: 일부 국가에서 대선을 전후한 정치적 혼란 등을 반영해 2021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신용등급은 하락세를 보임.

| 특히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페루의 신용등급이 하락함.

::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7개국이 3개 국제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그중에서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5개국임.

- 콜롬비아의 경우 2020년까지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S&P와 Fitch가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함.
-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경우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로부터만 유일하게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22년 2월 28일 기준)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일자	등급	일자	등급	일자
과테말라	Ba1 부정적	2020. 11. 10	BB- 안정적	2017. 10. 18	BB- 안정적	2020. 04. 03
도미니카 공화국	Ba3 안정적	2017. 07. 20	BB- 안정적	2021. 12. 8	BB- 부정적	2020. 08. 05
니카라과	B3 안정적	2020. 02. 14	B+ 안정적	2016. 02. 11	B- 부정적	2020. 06. 17
멕시코	Baa1 부정적	2020. 04. 17	BBB 부정적	2020. 03. 26	BBB- 안정적	2020. 04. 15
베네수엘라	C 안정적	2018. 03. 09	SD 부정적	2017. 11. 14	NR 매우 취약	2019. 06. 27
볼리비아	B2 안정적	2020. 09. 22	B+ 부정적	2021. 03. 24	B 안정적	2020. 09. 30
브라질	Ba2 안정적	2018. 04. 09	BB- 안정적	2020. 04. 06	BB- 부정적	2020. 05. 05
아르헨티나	Ca 부정적	2020. 04. 03	CCC+ 안정적	2020. 09. 07	CCC	2020. 10. 09
에콰도르	Caa3 안정적	2021. 02. 06	B- 안정적	2020. 09. 01	B- 안정적	2020. 09. 03
엘살바도르	Caa1 부정적	2021. 07. 30	B- 안정적	2018. 12. 28	CCC	2022. 02. 9
온두라스	B1 안정적	2017. 09. 22	BB- 안정적	2017. 07. 18	B+ 안정적	2020. 09. 03
우루과이	Baa2 안정적	2017. 07. 13	BBB 안정적	2017. 05. 30	BBB- 안정적	2019. 06. 27
칠레	A1 부정적	2020. 08. 25	A 안정적	2021. 03. 24	A- 안정적	2020. 10. 15
코스타리카	B2 부정적	2020. 06. 02	B 부정적	2020. 06. 09	B 부정적	2020. 05. 12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일자	등급	일자	등급	일자
콜롬비아	Baa2 부정적	2020. 12. 03	BB+ 안정적	2021. 05. 19	BB+ 안정적	2021. 07. 01
트리니다드 토바고	Ba1 부정적	2020. 05. 22	BBB- 안정적	2020. 03. 26		
파나마	Baa2 안정적	2021. 03. 21	BBB 안정적	2020. 11. 24	BBB- 부정적	2021. 02. 03
파라과이	Ba1 안정적	2016. 06. 21	BB 안정적	2016. 06. 15	BB+ 안정적	2019. 12. 06
페루	A3 부정적	2021. 05. 21	BBB+ 안정적	2013. 08. 19	BBB+ 안정적	2020. 12. 15

주 | 음영으로 표시한 부문은 투자적격 등급을 의미함  
출처 | Moody's, S&P, Fitch 홈페이지